

與 “검찰 견제” vs 野 “권력 보호” 공수처 공방

2차 정당 정책토론회...공수처 후보 검증 앞두고 신경전 추천위, 정치적 중립성 등 이견 좁히기 난항...끝장토론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들을 검증할 추천위원들이 12일 재산·병역 등 자료를 넘겨받고 집중 검토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립도 구체화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공수처를

잘 구성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 열린민주당 김성희 대변인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저 공니를 부리는 국민의 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계수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수

아내기 위한 기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추미에 법무부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총력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이날 예비후보 10명의 신상 자료 취합을 마치고 오후에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의 인사청문회를 참조해서 재산이나 병역, 가족 관계 등 자료를 요청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원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벌인다. 이날 회의는 검증 방식이나 기준 등 '규칙'부터 정해야

하는 만큼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추천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추천 기한을 정하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다"며 "기 싸움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자료를 검토하는 검증 과정에서도 장시간 '끝장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상으로는 뚜렷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능력, 중량감 등을 두고 추천위원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

여야는 일부 후보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거나 정치적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 능력과 경험 측면에서 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시각과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판사 출신이 적임이라는 시각도 나뉜다. 차관급이긴 하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는 위치라는 점에서 연평·경력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야당 측에서는 처음 추천한 후보 중 손기호 변호사가 사퇴함에 따라 추가 추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추천위 관계자는 "야당 측 추천위원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 열쇠"라며 "극적인 타협이 이뤄진다면 이날 최종 후보 2명이 추천될 수도 있지만, 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 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故) 전태일 열사 흉상 추서식에서 유가족에게 무궁화장 훈장증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태일 열사의 셋째 동생 전태리, 첫째 동생 전태삼, 문 대통령, 둘째 동생 전옥순. /연합뉴스

與 “윤석열, 사퇴하고 당당히 정치하라”

박주민 “정치 중립성 훼손”... 이상호 “쌈짓넌’ 특별비 검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명실공히 정치인이 됐다. 정치하려면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1위를 차지한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언급, “유력 언론사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하며 자신의 조직을 쟁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위하는 검찰은 누군가의 정치무대이자 정치 온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 윤석열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총장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많은 검사와 함께 정치판에 뛰어든 것 같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라며 “수사 중립성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바람

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은 공무원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 총장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양이 의원은 “측근에 대한 수사라든지 가족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미뤄지고 정치·정책 결정은 먼 지점이 하듯 하니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다”며 “그래서 그런(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이상호 의원은 특별비 문제를 거론, 윤 총장을 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사 목적으로 쓰이는 특별비는 폐지하면 안 되지만, 검찰총장이 쌈짓넌처럼 부하 직원들 격려자 밥값으로 어디 가서 술 먹고 밥 먹으라는 식의 특별비는 냉정히 감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전태일 열사를 대신해 그의 동생인 전옥순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 씨가 청와대를 찾아 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무궁화장이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추서식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50년이 지난 늦은 추사이지만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3 때 봤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운동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는 노동변호사가 됐다”며 “분신 후 수없이 많은 전태일이 살아났다. 저는 전태일 열사의 부활을 현실과 역사 속에서 느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권에서 끊어진 노동운동이 전태일 열사를 통해 되살아났고, 주 80시간 노동은 연 1천900시간 노동으로, 하루라도 쉬게 해 달라는 외침은 주 5일제로, ‘시다공’의 저임금에 대한 호소가 최저임금제로 실현됐다”며 “더디지만 우리 의지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보훈처 소관 상임위 국방위 변경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12일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대로 정무위 소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회 운영위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들의 처지와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단체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발의되면서, 관련 보훈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은 국방위가 포괄할 수 없고, 국방위와



의 연관성도 떨어져 지금껏 보훈단체와 소통하면서 추진해온 보훈정책에 혼선만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보훈정책의 핵심은 독립, 호국, 민주이며,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독립과 민주에 대한 이해와 고충을 담아내지 못했고, 어느 한쪽만의 연관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서삼석, 올 재해로 쌀 생산 감소 국가 보상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2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12일 이후 최종 확정된 2020년 쌀 생산량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앞서 10월 8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수준으로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면서 “실제는 태풍과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따라 30%까지 쌀 생산이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및 농업예산 비중과 식량자급률 등으로 현



장에서 느끼는 한국농업에 대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소외되었다”면서 “쌀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급이 심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쌀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급이 심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쌀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급이 심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빛원전 3,4호기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빛원자력본부를 사랑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한빛원전 공극 등 일부 부실공사 및 장기간 발전정지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은 건설 당시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실시공 문제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이러한 과오와 소통·공감이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군과 지역 주민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수원은 발견된 결함에 대한 최상의 조치를 통해 지역에서 신뢰받는 안전한 한빛3,4호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수 과정과 결과 등을 지역 주민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은 한수원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간의 관심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안전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빛3,4호기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한 소통으로 믿을 수 있는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일동